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통행정 활성화
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유진섭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28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애환운동본부, 자율방범대연합회,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각 사회단체의 애로사항과 시정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앞으로도 22개 부서 소관의 170여 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 소통행정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부서별로 사회단체 정례모임에 직접 방문하고, 시정 현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자체 최초
'동원물' 특별기획전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품이 온라인 쇼핑몰 동원물에서 특별기획전으로 판매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동원물(대표 김재욱)의 식품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동원물(www.dongwonmall.com)에서 농특산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동원물은 지난해 기준 일평균 4만명이 방문하고, 지난달 기준 회원만 100만명에 달하는 식품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고창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원물과 상생협력 기획전을 열었다. 이는 이미 전국 소비자들에게 고창의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각인돼 있고, 농가와 지역 업체의 엄격한 품질관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등에 동원물측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농가와 업체를 돕고,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한반도 농생명 식품산업 수도 고창군'을 알릴 나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스마트 관망관리 탄력

환경부 공모선정 49억원 확보... 내년 1월 설계용역 착수 2022년 12월 완료...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실시간 감시 등

부안군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인천 적수(탁물) 및 유출발생 사고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군의 전방위



부안군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2022년 12월까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수장 중심의 물공급 관리체계에서 배수지, 급·배수관망까지 확대 포함해 실시간 수질관리, 상수도 사고발생 사전방지, 사고발생시 신속한 감시체계를 활용해 수돗물 공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6만여명의 부안군민과 매년 부안을 찾는 600여만명의 탐방객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망 등의 감시체계를 활용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사고후를 실시간 감시·예측·대응이 가능하며 실시간 수질관리, 사고발생 사전방지, 사고발생시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가 가능한 선진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수도 전문 인력을 구성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정읍천 아양교에 은하수처럼 야간에 빛을 발하는 이색 불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 "아양교 '은하수 길' 걸어봐요"

야간에 스스로 빛내는 '축광석' 이색 불거리 제공... 시민 발길

정읍시가 정읍천 아양교에 은하수처럼 야간에 빛을 발하는 이색 불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3일 은하수 길을 개방해 시민들에게 야간 불거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천에 위치한 아양교는 길이 72m, 폭 2.5~6m의 보행자 전용 인도교로 바닥 데크가 노후되어 비틀림 현상이 심했다. 또, 야간에는 다소 어두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1억8천만 원을 들여 교량 바닥 215㎡에 축광석

을 도포해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내도록 했다. 축광석(蓄光石)은 낮 동안 태양, 형광등 외부 광원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저장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돌이다. 야간에 이 길을 걸으면 영롱한 별이 빛나는 낭만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은하수를 걷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은하수 길이라 불린다.

시는 이 교량이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 은하수 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낮과 오래된 시설물을 교체해 시민들에게 야간 불거리는 물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호응과 효과 등을 분석해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이달 31일까지 기초수급자 등 1000명 추가 신청접수

정읍시가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 집중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년여가 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어르신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000여 명을 추가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등 어르신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4개 수행기관에서 14명의 전담사회복지사와 178명의 생활 지원사 등

192명의 수행인력이 2,200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 신청의 어려움이 있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농업회사법인 당하 이웃사랑 새찰보리 기탁

부안군 동진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당하(당하정미소)는 8월 4일 부안군을 방문해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새찰보리(400포, 3백만원 상당)를 부안군에 기탁하였다.

이번 기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정식 당하정미소 대표가 참석한 가

운데 진행 되었으며, 기탁된 새찰보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관내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당하정미소 이정식 대표는 "작년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0포를 기탁하였는데 올해도 새찰보리를 기탁해주시으로써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경영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베풀어 온기를 주신 당하정미소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당하정미소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하게"

정읍시, 특조법 시행... 2년간

정읍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와 임야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대상이 된다.

신청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조조치법은 과거 시행된 특조조치법과 달리 보증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어 시행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해야 한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조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539-5386)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